

경희의료원 노조 파업 7시간만에 철회

파업기간 중 병원이용자 불편 겪어

지난 10일 정부가 노동조합의 파업계획을 불법으로 규정한 가운데 경희의료원 노동조합이 조합원 53.3%의 찬성으로 전면파업에 들어갔다. 그러나 노조는 파업 7시간만에 병원측과 합의, 파업을 철회하였고 22일 노사는 협약안에 대한 조인식을 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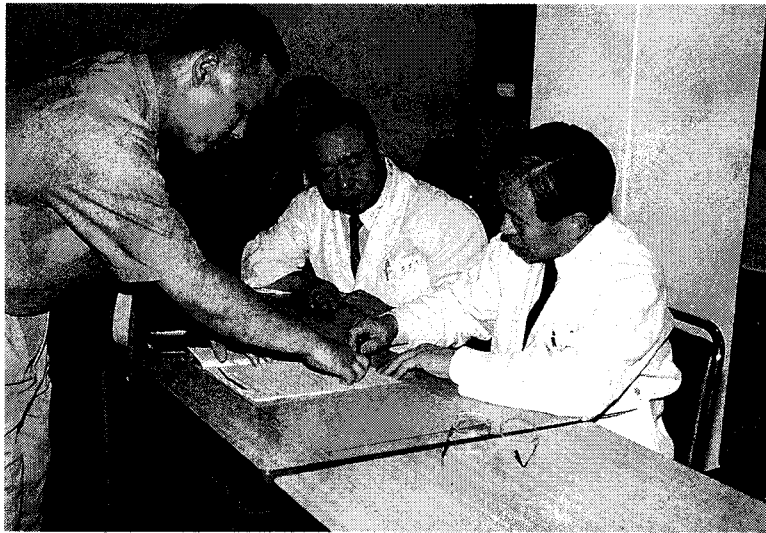
이날 노사는 임금 및 상여금을 동결하고 노조측의 요구사항인 △직원들의 고용안정을 위해서 부득이한 감원이 필요할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전협의의 거절 것 △편의시설제공과 복리후생 △양한방 단일화 체제 등의 4개 안과 병원측이 내놓

은 △조합명칭변경 △요양보상의 관련법 변경 등 4개의 단체협약에 모두 합의함으로써 그 효력을 발휘하게 되었다. 이 밖에 의료원측이 97년 신설했던 자기계발수당을 연간 16만원에서 35만원으로 인상지급하기로 하는 등 2개항의 긴 협상을 마무리지었다.

노사는 지난 5월 15일 1차 교섭을 한 이후 15차례에 걸쳐 교섭을 시도하였으나, 양측의 이견으로 합의점을 찾지 못하여 부득이하게 파업에까지 이르렀다. 이후 협상들과구를 마련하기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안을 받았

으나 양측 모두 주장을 굽히지 않아 협상이 결렬되었다. 이렇듯 양측 거부에 따라 최종 조정안 성립이 결렬된 상태에서 노조의 파업이 불법으로 규정되었고 경찰은 의료원 주변에 27개 중대 250여 명의 병력을 배치,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으나, 7시간만에 소위원회가 최종 가조인함으로써 큰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이들의 불법파업에 대한 법적 조치도 취하였으며, 기타 현안문제에 대해서도 최대한 노력한다는 입장에서 정리하여 비교적 안정국면으로 접어들게 되었다.

그러나 이번 파업으로 노조원



▲ 지난 22일, 최영길 경희의료원장이 협약안에 도장을 찍고 있다

1500여 명 중 200여 명이 업무를 중단한 채 본관 1층 로비에서 농성을 벌여 소아과 병원측은 간호사 대신 전공의와 간부직원들을 긴급 투입했으며, 외부에서 전달된 도시락으로 병원급식을 대신해 환자들이 불편을

겪기도 했다. 또한 이번 단체협약안은 병원측의 개정이 논의된 후를 통해 공식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첫 번째 사례로 이는 앞으로 다른 병원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김현중 기자)

의료원·외과

마취로의 초대

“선생님, 잘 부탁해요.” 자갈수 수술이 예정된 50대 초반의 아주머니가 다소 떨리는 목소리를 낸다. 수술실이라는 막연한 두려움에 더해 시야에 들어오는 낯선 기계들, 심전도의 규칙적인 소리마저도 환자를 불안하게 한다. 그나마 아주머니는 좀 나은 편인지도 모른다. 더 많은 환자들은 다만 사르르 떨리는 눈을 지그시 감은 채 수술실에서 무사히 나갈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정작 수술실은 두려워해야만 할 곳은 아니며, 수술과 마취의 발달에 따라 오히려 가장 확실하고 가시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획기적인 치료의 공간으로 자리매김한 지 오래다.

인간을 고통에서 벗어나게 한 첫 기록은 구약성서 창세기에서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그 배필로 여자를 만들기 위해 아담을 깊게 잠들게 하시고 늑골 하나를 취하였다’는 대목으로, 이것이 마취의 역사이며 모든 의학의 시작이라 할 수 있다. 마취는 영어로 anesthesia로 표기하는데, 이는 그리스어의 an(없음)과 aisthesis(감각)의 합성어에서 유래하여 ‘감각의 소실’을 의미하는 말이다. 역사적으로 19세기 중엽 에테르에 의한 마취 시연이 대중적 마취의 시발이었으며, 미국에서 마취와 의사들의 모임이 결성된 시기도 1945년으로 그 이후 현대 마취과학의 눈부신 발전이 이루어졌는데, 성공적인 마취가 성공적인 수술의 필수 요건이기 때문에 마취과학은 의학의 각 분야 중 매우 독특하고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수술실에서 마취과 의사에 대한 느낌을 이렇게 적은 글이 있다. ‘나는 수술실에서 성격이 대비되는 두 그룹 즉, 외과 의사와 마취과 의사의 그룹을 보았다. 외과 의사들이 정력적인 한편 씩씩하고 불임성 있으면서 거친 자신감을 갖는 집단이라면, 마취과 의사들은 지적이고 재기가 넘치는 관찰자이면서 초연해 보이는 오만상을 가진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수술을 받는 환자들의 생명을 시시각각 지켜주는 사람은 바로 마취과 의사들이었다. 대부분의 수술에서 가장 심각하고 중대한 위험은 자르고 꿰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전신마취에 달려 있었다. 마취과 의사들은 인간의식의 화학요법사이며, 통증에 대한 기능사이며, 삶과 죽음의 길을 끊임없이 넘나드는 환자들을 인도하는 안내자이다. 그들은 그 오묘한 마취의 과학으로 계획하고 연출하는 연극에 외과 의사를 배우로 쓰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음이 틀림없어 보였다. 나는 그들의 천연덕스러운 우월감을 놀라운 눈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마취과 의사들은 음식에서 목욕하 일하는 존재이다. 그들의 얼굴은 마스크가 가려져 있고 모자를 쓰고 있으며, 환자 또한 수술실에서는 극심한 긴장감으로 인해 정상적인 기억력을 발휘할 수 없기 때문에 마취과 의사를 기억하는 환자는 거의 없다. 따라서 남의 눈에 띄지 않아도 부지런히 일하는 기쁨을 아는 사람이나 어두운 그림자 속에서도 혼자 미소짓는 비밀을 배운 사람들에게 마취과가 있다는 것은 행운일 것이다.

그는 이제부터 당신을 그 지독한 수술의 고통을 잊고 잠들게 한다. 그 잠은 그가 당신에게 준 것이고, 또 당신이 깊이 잠든 사이에는 바로 그가 당신 생명의 문고리를 총살히 지켜주는 것이다.

김동욱 (마취과 교수)

학교주변 노점상 증가

미취업자·실업자가 노점상인의 대부분

요즘 우리학교 서울 캠퍼스와 인근 학생이나 직장인 그만 둔 사람이 거역 주변에 노점상이 부쩍 늘었다. 이라는 점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역에서 학교까지 가는 길에만 다. 하지만 수입이 크게 줄어 어려움을 겪는 것은 마찬가지. 서울 은행 앞에서 노점상을 하고 있는 박정해(31)씨는 “직장에 다닐 때보다 수일이 낮은 데다가 노점상의 증가로 매상이 줄어 더 힘들다”고 말했다. 몇 년 전만 해도 노점상이 돈벌이 제일 편하다는 말이 있었다. 하지만 현재 상황은 그 때와는 전혀 다른 양상을 띠고 있다. 또한 경제 사정이 크게 호전되지 않는 한 노점상의 수는 당분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이 취업이나 창업 준비중

‘구민과의 대화의 날’ 성황

동대문구청에서는 지난 9일부터 매주 목요일을 ‘구민과의 대화의 날’로 정하고 구민과 구청장과의 만남을 정기적으로 갖고 있다.

중대의 권위주의, 관료주의의 행태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로 매주 운영되고 있는 이 대화에 현재까지 총 47명의 구민이 참석하였으며, 총 55건의 건의사항이 논의되었다.

대화 참가자는 동대문 구민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동사무소 또는 구청 총무과(920-4310)에 신청하면 대화 일정을 개별통보 받는다.

구청관계자는 “이동구청장실, 신문고제도 등을 도입하여 홍보용 행정이나 구민을 위한 밀착행정을

정착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방병원 무료건강강좌 실시

경희의료원 한방병원과 매일경제신문사가 주관하는 ‘무료건강강좌’가 지난 22일 첫 강의를 시작으로 오는 99년 6월까지 1년간 진행될 예정이다.

이 강좌는 매일 셋째주 목요일 의료원 강당에서 열리며 한방병원 소속 교수들이 중풍, 냉증의 한방요법, 성인병, 축농증 등에 대해 강의하게 된다.

이에 따라 지난 22일에는 인구의 80% 이상이 일생 중 한 번은 않는

다는 요통, 그 중 ‘척추관협착증’과 부작용이 없는 비약물 요법인 ‘추나요법’에 대한 한방병원 재활의학과 이종수 교수의 강의가 있었으며, 방청객을 대상으로 추나요법 시범을 선보이기도 했다.

다음 강좌의 주제는 ‘생활속의 기공’으로 오는 8월 27일 오후 4시 의료원 강당에서 열릴 예정이다.

우리고장 생산품 ‘홍보전시관’ 개관

동대문구에서는 IMF 한파로 인해 침체된 지역 경제의 발전과 중소기업체 수출업체 육성을 위한 우리고장 생산품 ‘홍보전시관’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개관식은 지난 24일 구민회관 1층에서 유덕열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자 9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으며, 관내 제조업체에서 생산되는 생활용품 및 우수 상품을 연중 전시하게 된다.

문의는 동대문구 지역 경제과(920-4365-8)로 하면 된다.

청소년을 위한 문화유적지 순례

지난 23일부터 1박 2일 동안 저소득층 청소년을 위한 문화유적지 순례가 있었다.

동대문구가 주관한 이 행사는 가정형편상 견학기회를 얻지 못하는 청소년들에게 우리 전통문화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새로운 자긍심을 심어주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실시되었으며, 80명의 청소년이 선발되어 행사에 참가했다.

광고저수지 준설공사 시민공청회 개최

수원시는 수원시민의 비상상수원인 광고저수지의 준설공사에 따른 저수지내 물고기 처리방안에 대한 시민공청회를 지난 23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광고저수지에는 붕어, 잉어, 가물치, 잡어 등의 물고기가 서식하고 있으며 추정량은 5-10톤 가량이다.

시는 그물을 고정 한 후 고기를 몰아넣는 방법으로 물고기 손상이 없는 삼각망 포획법을 이용, 포획하기로 했다.

광고저수지 준설공사는 오는 99년 5월 완료될 계획이다.

가훈 서예전 입상작품 전시회

‘제 2회 동대문구 가훈 서예전’에서 입상한 작품 전시회가 지난 20일부터 12일동안 동대문구청 1층 로비에서 열리고 있다.

이번 전시회는 우리의 전통 문화를 계승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고자 마련되었으며 오는 8월 3일부터는 자리를 옮겨 동대문구 답십리동 문화회관 전시실에서 12일간 계속될 예정이다.

문의는 동대문구 문화공보 담당관(920-4410-3)으로 하면 된다.

무료법률상담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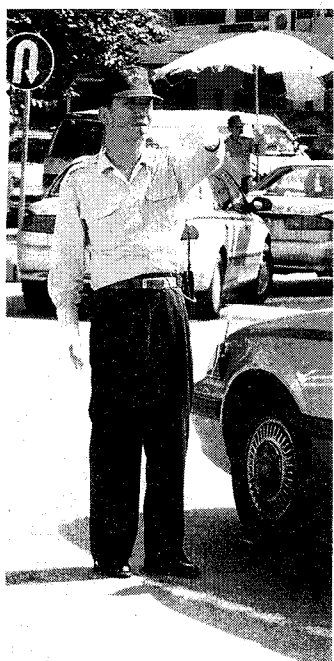
충분한 법률 서비스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서민층을 위한 무료법률상담이 동대문구 종합민원창구에서 오는 8월 4일부터 12일까지 실시된다.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 사법연수생의 무료봉사로 진행되는 이번 상담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가사, 전세, 주택 등 생활 제반 법률사항을 상담할 수 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동대문구 시민과(920-4301)로 하면 된다.



우리마을 지킴이



경희의료원 교통정리요원 유철현씨

11년간 무(無)사고 휘파람

“좋은 길잡이 역할에 자긍심 느낍니다”

“휘파람”

이른 아침, 서울캠퍼스 동문문 앞에선 봄비는 차량들의 경적소리에 속아 사고방지를 위한 호루라기 소리를 들을 수 있다.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경희의료원 유철현(49)씨가 내는 경고소리다. 학교와 의료원을 드나드는 차량이 많은 탓에 유씨는 하루에 12시간씩 열심히 교통정리를 하고 있다.

88년 경희의료원에 입사해 만 11년 동안 근무한 유씨는 군대에서 하늘교통을 관리하는 항공관제사 일을 7년 반동안 한 덕에 교통에 관해서는 일인자임을 자부한다. 하지만 유씨에게도 힘든 점은 있기 마련이다.

“겨울보다는 여름이 더욱 힘들다. 볼레지수가 높아져 운전자간 싸움이 잦아지기 때문이지. 또 밤이면 술을 먹고 고성방가하는 학생들로 인해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자식같은 학생들 걱정에서 비롯된 충고도 잊지 않는다.

“요즘 학생들은 차가 무서운 줄 모르는 것 같아요. ‘안전 불감증’이라고 할 정도로 자신의 안전에 대해 무감각해요. 제발 삼가쪽으로 붙어서 걸어야겠으면 좋겠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 앉을 때가 한 두 번이 아니라니까요.”

이밖에도 유씨는 운전자들이 중간에서 U턴을 하게 되면 뒷차가 밀릴 뿐 아니라 반대편 차량과도 부딪힐 위험이 있다면서, 특히 등용

문부터 3-40m까지는 인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기 때문에 더욱더 조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11년동안 몇 번의 사고가 있었으나 질문에는 “한 번도 없었다.”라며 자신있게 답하는 유씨. 앞으로도 무사고를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고 한다.

“교대시간이 되면 오늘도 무사히 사고 없이 보냈구나, 오늘도 좋은 길잡이 역할을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이 때만큼 큰 보람을 느낄 때도 없죠.”

자신의 일에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며 열심히 일하는 아저씨가 있는 한 우리 마을의 안전은 이미 지켜진 것이 아닐까?

(김주애 기자)



새로운 전원을 준비하는

경희대학교 사회교육원 98학년도 2학기 수강생 모집

열린 사회 열린 교육을 선도하는 경희대학교 사회교육원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과정명	강좌명	요일 및 시간	교육기간	교육장소
교양교육	세브키여행	목요일 10:00 ~ 12:00	1학기	본교
	시정범수필교실	화요일 10:00 ~ 12:00	1년	본교
	시창작교실	화요일 13:00 ~ 15:00	1년	본교
		수요일 14:00 ~ 17:00	1년	강남
	생활역력학	월요일 10:00 ~ 12:00	1학기	본교
		수요일 13:00 ~ 15:00	1학기	시내
전문직업	논술전문지도자	일요일 13:30 ~ 15:30	1학기	본교
		토요일 15:30 ~ 17:30	1학기	본교
	창조력개발지도자	목요일 19:00 ~ 21:00	1년	본교
		금요일 19:00 ~ 21:00	1학기	본교
	방송작가	수요일 10:30 ~ 12:30	1년	본교
		수요일 19:00 ~ 21:30	1년	본교
	분장예술전문가	수요일 19:00 ~ 21:30	1년	본교
		수요일 18:30 ~ 20:30	1년	본교
	스포츠댄스지도자	토요일 10:00 ~ 13:00	1년	본교
		토요일 10:00 ~ 13:00	1년	본교
	디지털사진전문가	목요일 19:00 ~ 21:00	1학기	본교
		월, 금요일 09:00 ~ 11:00	1년	본교
	컴퓨터그래픽전문가	월, 금요일 11:00 ~ 13:00	1년	본교
		월요일 14:00 ~ 18:00	1학기	본교
	멀티미디어전문가	금요일 14:00 ~ 17:00	1년	본교
		토요일 13:00 ~ 16:00	1년	본교
	인터넷·웹디자인전문가	화요일 09:00 ~ 12:00	1년	본교
		토요일 09:00 ~ 12:00	1년	본교
건설및전문가	노인복지전문지도자	일요일 14:00 ~ 18:00	1년	본교
		목요일 14:00 ~ 16:00	1년	본교
		월요일 18:30 ~ 22:00	1년	본교
		목요일 18:30 ~ 20:30	1년	본교
	치매환자전문인	목요일 14:00 ~ 16:00	1학기	본교
		월요일 10:00 ~ 12:00	1학기	강남
가정보건	생활환경의학	화요일 19:00 ~ 22:00	1년	본교
		화요일 13:30 ~ 15:30	2년	본교
	생활환경과 제3의학	토요일 14:00 ~ 16:00	1년	본교
		화요일 13:30 ~ 15:30	1년	강남
	여성건강	월요일 14:00 ~ 18:00	1학기	본교
		금요일 14:00 ~ 16:00	1학기	강남
	현대인의 스트레스와 심상기법	수요일 19:00 ~ 21:00	1학기	강남
		수요일 19:00 ~ 21:00	1학기	강남

과정명	강좌명	요일 및 시간	교육기간	교육장소
음악교육	영정행가곡교실	목요일 10:30 ~ 12:30	1년	본교
		화요일 10:30 ~ 13:00	1년	강남
	성악전공	목요일 10:00 ~ 12:30	1년	시내
		토요일 10:30 ~ 13:00	1년	시내
	작곡전공	월요일 18:30 ~ 21:00	1년	강남
		목요일 18:30 ~ 21:00	1년	본교
전문예술교육	지휘전공	금요일 17:30 ~ 19:30	1년	본교
		금요일 15:30 ~ 17:30	1년	본교
	유희 및 수채화	금요일 14:00 ~ 17:00	2년	본교
		토요일 15:30 ~ 17:30	1학기	본교
	영상미술	월요일 10:00 ~ 12:00	1년	본교
		금요일 14:00 ~ 16:00	1년	본교
꽃예술이카데미	꽃예술이카데미	수요일 10:00 ~ 13:00	1년	시내
		목요일 10:00 ~ 13:00	1년	강남
	꽃예술이카데미	금요일 10:00 ~ 13:00	1년	시내
		화요일 10:00 ~ 13:00	1년	시내
	도예교실	수요일 10:30 ~ 12:30	2년	강남
		금요일 10:30 ~ 13:30	1년	본교
여학교육	플라워아트 지도자	화요일 14:00 ~ 16:00	1년	시내
		화요일 16:00 ~ 18:00	1년	시내
	플라워아트 최고전문가	목요일 13:00 ~ 15:00	1년	시내
		목요일 15:00 ~ 17:00	1년	시내
	꽃예술이카데미	수요일 18:30 ~ 20:00	1학기	본교
		월, 수요일 18:30 ~ 20:00	1학기	본교
사회체육	생활영역	화, 금요일 18:30 ~ 20:00	1학기	본교
		월, 수요일 17:00 ~ 18:30	1학기	본교
	스포츠마사지	목요일 13:00 ~ 15:00	1년	본교
		목요일 15:00 ~ 17:00	1년	본교
	카이로프락틱	수요일 13:00 ~ 15:00	1년	본교
		수요일 15:00 ~ 17:00	1년	본교
	발마사지	수요일 17:00 ~ 19:00	1년	본교
		목요일 17:00 ~ 19:00	1년	본교
	한국무용	월요일 20:00 ~ 22:00	1년	본교
		금요일 19:00 ~ 21:00	1년	본교
	사물놀이와 춤	금요일 19:00 ~ 21:00	1년	본교
		화, 목, 토요일 10:00 ~ 12:00	1년	본교

■ 입학안내 ■

- 모집기간**
'98. 8. 17(월) ~ '98. 9. 5(토)
09:00 ~ 17:00
- 개강일시**
1998년 9월 둘째주 월요일부터 해당요일
- 등록 및 수강신청**
 - 원서작성후 지로용지로 수강료 납부
 - 수강료는 과정별 별도 책정
- 제출서류**
 - 입학원서(본원 소정양식)
 - 사진(반명함판) 2매
- 강의 안내**
 - 각 강좌 수강인원이 15명 이하이거나 교강사의 사정상 폐강 될 수 있음
 - 특강, 야외세미나, 발표회, 전시회 실시
- 특기사항**
과정 이수 후 수료증 또는 자격증 수여
- 등록접수처**
경희대학교 사회교육원 (본관1층)
Tel : 961-0870~2
Fax: 961-0873

사회교육원

* 본교는 서울캠퍼스, 시내에는 시내한남동, 강남은 강남경희문화공원의 강의실임